

‘문화’의 범람을 초극하는 글쓰기

-유진오의 전향론과 「창랑정기」

이지상*

-차 례-

1. 들어가며: 유진오의 전향론
2. ‘마르크스주의자=친일반민족주의자’의 논리
3. ‘창랑정’의 꿈과 ‘문화’의 공포
4. 나오며: 전향-비전향이라는 두 층위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국문초록]

본고는 현민 유진오의 ‘전향’이 지니는 분열적 특성을 살피고, 그의 단편소설 「滄浪亭記」가 그의 전향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법조계 인사로 잘 알려진 유진오는 해방 이전까지 문예가로 활동하여 여러 족적을 남긴다. 그를 향한 연구 시각은 동반자작가로 칭해지는 ‘마르크스주의자’로서의 전기와 대동아공영론을 받아들인 ‘친일반민족주의자’로서의 후기로의 양분을 전제한다. 본고는 그러한 이분법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유진오의 전향을 사상적 포기나 도약으로만 보는 기존의 시각과 거리를 둔다. 유진오의 ‘문화’에 관한 관점을 바탕으로 서구 개인주의의 침습에 맞서 ‘조선적인 것’ 내지 ‘동양적인 것’을 보존,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인 것’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를 사상적 우위에 두던 전기와 동일한 기제를 수반한다. 이에 따라, 유진오의 전향은 ‘문화’가 범람하는 시대적 공포에 맞서는 대응의 일환으로 보아 그 층위가 전향-비전향으로 분열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938년 발표된 「창랑정기」에 나타나는 생활세계에의 고수는 실상 동일시가 무너진 전형기 유진오의 고뇌를 드러내며, 이는 ‘문화’의 범람에 대응을 모색하는 주체라는 유진오 개인의 평론적 정체성과 궤를 같이 한다.

이로써 분열의 두 층위가 중첩되는 형상을 식별할 수 있으며, 이는 유진오의 ‘사실수리론’을 백철의 그것과 구분하는 중요한 보충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유진오, 전향, 비전향, 「창랑정기」, ‘문화’의 범람, 지역적인 단체관념, 조선적인 것, 사실수리론

1. 들어가며: 유진오의 전향론

본고는 현민(玄民) 유진오의 ‘전향’¹⁾이 지니는 분열적 특성을 살피고, 그의 단편소설 「滄浪亭記」²⁾가 그의 전향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경성제대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한 유진오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대 법제처장에 오른 것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나, 그가 해방 이전까지 보여준 문예가로서의 족적은 그의 친일행적에 대한 시비와 함께 다소 묵과되곤 했다. 유진오는 비평과 소설을 두루 창작했는데, 그의 소설에 관한 총체적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³⁾ 그 이후로 1990년대 후반까지 20여 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십수 편의 석사학위 논문이 연달아 발표되었고, 이러한 경향에 따라 유진오 소설론은 비교적 단기간에 빠르게 축적되었다.⁴⁾ 유진오 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박사학위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에서 보여지는 총체적 특질을 발견하기를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주제별로 김남천, 혹은 유진오와 함께 동반자작가로 분류되는 이효석과의 문학적 비교를 목적으로 하거나⁵⁾, 당대 소설사적 흐름을 조망하기 위한 부분적 탐구를 목적

1) 본고에서 다루는 ‘전향’은 “마르크스주의자가 그 주의에 무관심 혹은 타 주의로 옮기는 것”이라는, 단어의 “상식적, 습관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비록 1930년대 조선 내 프로문학가의 전향이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포기’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원인은 NAPF의 전향 사례 답습, 시대적·사회담론적 한계, 비평이론의 모색 등 여러 요인이 충돌하였기 때문이다. 본고는 ‘전향’과 ‘전형기’의 문제가 요인의 다양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으로부터 복합적인 층위를 지니고 있다는 관점으로 유진오의 전향 사례에 접근할 것이다. 김윤식, 『한국현대근대문예비평사연구』, 문학과지성사, 2024, 235-268면 참조.

2) 「滄浪亭記」, 『동아일보』, 1938년 4월 9일-5월 4일. 본고에서는 유진오, 진영복 편, 『유진오 단편집』, 지식의만드는지식, 2008, 65-93면 판본을 기본자료로 사용하였다. 이하 인용시 작품명, 쪽수만 기재.

3) 윤대석, 「유진오 소설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1996, 4-5면 참조.

4) 김금소, 「玄民小說 研究」, 고려대 국어교육전공 석사논문, 1982; 박용수, 「유진오 소설 연구」,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1982; 장운수, 「유진오와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현실인식」,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1982.를 시작으로 총 18개의 유진오 문학 소재 석사학위 논문이 언급한 시기에 발표되었다. 2000년대 이후 발표되는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유진오 소설의 총체적 탐구보다는 특정 지점을 섬세히 독해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진다.

으로 하고 있다고⁶⁾ 큰 줄기를 정리할 수 있다.

유진오는 채 20년이 되지 않는 짧은 문학기⁷⁾ 동안 왕성한 창작열을 올렸다. 장편 2편⁸⁾, 단편 50여 편이라는 소설 작품 수를 고려할 때, 유진오의 소설 창작 경향은 비교적 쉽게 파악되리라 기대하기 쉽다.⁹⁾ 그러나 유진오 소설론은 그가 쓴 평론과 소설 사이의 괴리¹⁰⁾나 그가 실제로 취한 전향의 문제¹¹⁾로 인해 합의를 이룰 만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머물러 있다.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1935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을 ‘동반자작가’의 시기로, 이후를 ‘시정편력의 문학’ 시기로 명확히 구분한다.¹²⁾ 먼

- 5) 대표적으로, 광근, 「俞鎮午와 李孝石의 前期小說 研究: 同伴者作家 論議를 中心으로」,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1986; 송효정, 「식민지 후반기 문학의 근대 기획 양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10. 등을 꼽을 수 있다.
- 6) 장성규, 「1930년대 후반기 소설 장르 인식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12; 백지혜, 「경성제대 작가의 민족지 구성방법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13; 정하늬, 「일제 말기 소설에 나타난 청년 표상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14. 등이 이에 속한다.
- 7) 유진오는 1927년 『조선지광』 4월호에 발표한 「復讐」에서부터 1944년 일본어 소설 「祖父의鐵屑(조부의 쇠 부스러기)」까지 약 18년간 ‘문단의 총아’로 불리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러다 1945년 8월 16일 임화의 권으로 참여한 문예 좌담회에서 “일본놈 때도 출세를 하고 해방되어서도 또 선두에 서려”함에 이태준에게 나무람을 듣고 퇴장한 뒤로 문단과는 거리를 둔 채 법조계에 귀의한 삶을 살게 된다. 백철, 『문학자서전』, 박영사, 1975, 300면., 김윤식, 「광복후의 문화운동연구 -인민민주주의 민족문화운동을 중심으로」, 국사편찬위원회 편집부 편, 『國史館論叢』 제25집, 국사편찬위원회, 1991, 223-224면에서 재인용.
- 8) 1938년의 「受難의 記錄」, 1939-40년의 「華想譜」.
- 9) 유진오 소설의 총람은 최신 연구인 박창환, 「일제 말기 유진오 소설의 애도 양상 연구」, 숭실대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2021, 1-2면을 참조.
- 10) 황경, 「유진오의 일제말기 소설연구」, 『우리어문연구』, 우리어문학회, 2008, 58면.
- 11) 이에 관한 논의는 대표적으로, 유문선, 「동반자작가의 전향에 관한 시론 -현민 유진오의 경우-」, 『관악어문연구』 제8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3; 안미영, 「앙드레 지드의 수용과 한국 근대문학 로컬리티의 재구성 -전향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5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이 있다.
- 12) 1935년을 중심으로 유진오 소설을 구분하여 부분적 총체성을 모색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이재춘, 「玄民 俞鎮午 小說 研究」, 『어문학보』 제9집,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1985; 변정화, 「귀향의 사회학 —유진오의 〈滄浪亭記〉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이행선, 「일제말기 유진오의 문학 인식」, 『국제어문』 53, 국제어문학회, 2011. 등이 있다.

저 1930년대 초반까지의 전기 소설은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당시 문단 사조에서 큰 축을 담당했던 카프(KAPF)의 프로문학과 주제 의식을 공유한다. 반대로 1930년대 후반부터 이어지는 후기 소설은 ‘시정(市井)의 편력(遍歷)’¹³⁾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상성이 제거된 생활세계의 모습을 그린다.

이처럼 유진오의 소설 세계는 1935년을 중심으로 크게 변화한다는 논지를 본고는 수용한다. 만일 유진오 소설/비평 세계에 나타난 이 같은 현상을 ‘전향’이라 부르기로 한다면¹⁴⁾, 이는 1930년대 지식인 담론 체계와 연결되어 보충적인 설명을 얻을 수 있다.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 초까지 카프는 조선 지식인들의 사상적 기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카프를 향한 일제의 압제가 시작되면서 카프가 주도한 마르크스주의 담론은 급속도로 힘을 잃게 되었다. 특히 1931, 34년 두 차례의 카프 검거와 1935년 카프 해체는 조선 지식인들의 담론 자장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렬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사건은 필연 문학에서의 사상의 우위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조선 지식인들에게 각인시켰다. 이전까지 조선어를 비롯한 조선 문화에 대한 일제의 억압이 전무한 것은 아니었으나,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이전까지 종종 분출되던 ‘내선일체론’에 대한 반대 기류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¹⁵⁾

유진오 또한 단편 「金講師와 T教授」(1935)을 발표하며 문학예술에서 사상의 패배를 자인했다.¹⁶⁾ 이는 곧, 이어지는 단편 「가을」(1939), 「봄」(1940), 「南谷先生」(1942) 등이 공통적으로 ‘시정세계’라는 비(非)-사상적 현실을 대상으로 한다는, 즉 프로문학의 성격이 결여된 생활세계를 그린다는 평을 획득하게 되는 기점이 되었다.¹⁷⁾

13) 유진오, 「朝鮮文學에 주어진 새길」, 『동아일보』, 1939년 1월 10-13일 참조.

14) 유문선, 「동반자작가의 전향에 관한 시론 -현민 유진오의 경우-」, 371면.

15) “이러한 담론을 생산하는 코드와 그 범위를 넘었을 경우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이 협력하여, 제한된 담론 공간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어떠한 담론이 생산되고 이 코드에 따라서 생산되고 이해되고, 또 유통되었다. **이전에는 공학 추진이 해프닝으로 끝났다면 이제는 공학 반대가 해프닝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윤대석, 『식민지 문학을 읽다』, 소명출판, 2012, 99-100면, 강조는 인용자.

16) 변정화, 「유진오 작품고(Ⅱ) -훼손된 시대와 소설의 구조-」, 『국어교육』 51호, 한국어교육학회, 1985, 16-17면; 윤대석, 「폐색의 시대, 길을 묻다 -김남천·유진오의 소설에 대해」, 『김강사와 T교수』, 현대문학, 2011, 13-14면 참조.

문제적 지점은 유진오가 이와 같은 담론의 변전 속에서 스스로 친일 동조의 길을 선택한 이후에도 이광수의 ‘내선일체론’에 대해서는 완고한 거부를 표한다는 것이다.¹⁸⁾ 이는 전향의 동기가 단지 담론 변전이라는 외적 동기에만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뒤에서 살펴볼 바, 이는 유진오에게 마르크스주의는 어떠한 이상(理想)의 현상적 발현을 위해 유진오가 받아들인 사상적 체계였다는 것과 동일한 양태를 띤다. 그 이상이란, ‘문화’가 범람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조선적인 것’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나갈 방도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어떻게 하여 동양의 오랜 전통을 새로운 규모 아래 건설해 낼 것인가”¹⁹⁾라는 유진오의 질문에 대한 ‘신질서 건설’의 고민과 맞닿아 있다.

본고는 먼저 유진오가 사상적 현실에 대처하는 사고가 ‘문화’에 대한 그만의 사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그가 1935년 이후 내세운 ‘신질서 건설’이라는 사상적 지향은 실상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던 ‘동반자작가’ 시기의 인식 체계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전향기 유진오의 문화관(文化觀)을 예증하는 「창량정기」 분석을 통해, 마르크스주의자에서 친일 협력자로 직접적인 비약이 발생했다는 유진오에 대한 통상적인 견해에 새로운 해석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에 앞서 유진오가 ‘문화’에 대해 견지하는 기본 전제와 그의 전향 논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마르크스주의자=친일반민족주의자’의 논리

박영희에 의해 ‘동반자작가’로 칭해진²⁰⁾ 유진오가 마르크스주의를

17) 유문선, 「동반자작가의 전향에 관한 시론 -현민 유진오의 경우-」, 384면 참조.

18) 유진오는 이광수가 내세운 내선일체론에 대해 “조선인과 일본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거부한다. 김재용, 「[기조강연] 일제말 친일협력의 네 가지 형식과 그 연원」, 『한국문학과 예술』 제12권,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3, 14면 참조, 강조는 인용자.

19) 유진오, 「소감」, 김병걸·김규동 편, 『親日文學作品選集·2』, 실천문화사, 1986, 71면.

주요한 창작 사조로 받아들인 데에는, ‘사회적인 것’을 향한 유진오의 흥미가 자리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들여다보자면, 등단 당시부터 실상 ‘부르주아 문학’을 하고 있다는 비난²¹⁾을 받아온 유진오를 ‘프로문학가’로 명명할 때 난처함이 발생한다. 1927년 「복수」, 「스리」, 「把握」 등의 소설을 발표한 청년기 유진오가 드러내려고 한 ‘사상성과 문학성의 결합에 관한 고민’은 마르크스주의를 통해 사회주의적 이상을 담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식민지적 정체성의 난국이 돌과 가능할지에 대한 분투를 담고 있기 때문이었다.²²⁾

그에게 있어 마르크스주의는 하나의 사상성으로, 문학성과의 조화를 통해 ‘사회적인 것’의 실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유하는 방법적 도구이다. 유진오는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자로 호명하는데²³⁾, 다시금 고민의 축은 사상적 발양이 아닌, “식민지 현실”이 된다.²⁴⁾ 즉, 유진오가 실천한 마르크스주의 수용은 조선인으로서 “계급적 기반에 혼란을 겪는 인테리”로서의 자신이 투영되고 반영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²⁵⁾

이후 발생하는 유진오의 ‘전향’은 카프에 깊이 녹아들 수 없었던 그가 동일시의 지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담론과 맞닿아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문화’라는 개념을 통해 그가 전개하는

20) 유문선, 「동반자작가의 전향에 관한 시론 -현민 유진오의 경우-」, 375면. 팔봉 김기진도 1934년에 유진오를 ‘동반자적 경향파’ 작가로 분류한 바 있다. 김기진, 「朝鮮文學의 現在의 水尊」, 『신동아』, 1934년 1월, 46면.

21) “大學 二年 때 「朝鮮之光」에서 사람을 介하여 글을 쓰라는 付托이 왔다. (이런 일도 지금은 없을 일이지와) 그것에 應해 短篇 두개를 써보냈으니 「스리」와 「復讐」가 그것이다. 그것에 對해 廉想涉氏는 大端 好評을 하고 金基鎮氏는 부르즈와 文學이니까 나쁘다고 評했다.” 유진오, 「걸어온 길: 作家 生活의 回顧」, 박문서관, 1939, 강조는 인용자.

22) 정중현, 「현민(玄民)이 아직 진오(陣伍)일 때 -청년 유진오의 글쓰기를 통해 본 식민지 아카데미즘과 사회주의」, 『역사와현실』 제118호, 한국역사연구회, 2020, 315면.

23) 유진오, 『구름위의 漫想: 俞鎮午隨想錄』, 일조각, 1966, 271면.

24) 정중현, 「현민(玄民)이 아직 진오(陣伍)일 때 -청년 유진오의 글쓰기를 통해 본 식민지 아카데미즘과 사회주의」. 315면 참조.

25) 이러한 점은 카프의 프로문학과는 진취성과 지향이 매우 차이가 나는바, 유진오의 문예관이 카프 비평가들로부터 ‘소뿌르’ 내지 ‘뿌르’의 그것에 닿아있다는 평가를 촉발하게 한 연유로 볼 수 있다.

어떠한 이상을 전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1939년 조선일보에 실린 「歐羅巴文化는 어대로? 結論: 文化의 危機와 그 超克」²⁶⁾에는 유진오가 사상 선택을 위해 경유하는 문화관이 잘 드러나 있다. 주지하자면 1935년 이전 ‘동반자작가’ 시기의 유진오는 이상적 국가 형상을 마르크스주의를 통해 모색해왔다. 그러나 앞서 주지한 ‘사상의 패배’ 이후, 그는 그것을 (일제가 피식민지 지식인 동화를 위해 주창한) ‘대동아공영론’이라는 관념으로부터 새로이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유진오의 모색 과정은 그 시기 그가 소설과 비평을 통해 일제히 정립하고 있던 문화관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진오가 일제 협력 노선에 편승한 데에는 여하간 ‘문화’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文化의 밋바침이 되는 物質 文明의 發展이 그러한 龍大한 꿈을 實現시키기에는 아직 距離가 먼 것이다. 飛行機가 地球의 面積을 좁혔다. 하지만 우리의 日常生活과는 아직 因緣이 멀다. 東京 안저서 伯林이나 倫敦 잇는 사람하고 電話로 直接말을 주고받으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잇을 적마다 新聞에 特別記事로 取扱되고 잇는 現狀이 아난가. 이리해 이곳에 個人 및 그것을 基礎로 한 國家에서 世界國家로 飛躍하기 前에 現國家를 超越하는 그러나 地域의인 團體觀念이 誕生하는 것이다.²⁷⁾

인용에서 알 수 있듯, 유진오는 ‘문화’란 직접적으로 성취될 수 없는 대상이라 설명한다. “物質文明의 發展”이 일상생활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까닭이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예시되는 그 “物質文明”은 ‘문화’ 발전을 나타내는 기표이지만, 그 발전 상황은 현실 생활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신문의 “特別記事”로만 체감되는 별천지의 것에 불과했다.

또 다른 위협으로서, 서구적 ‘문화’는 “個人主義” 원리를 내면화함으로써 “團體主意”라는 이상적 문화 쟁취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物質文明”의 발전은 “東京 안저서 伯林이나 倫敦 잇는 사람”을

26) 『조선일보』, 1939년 5월 10-13일. 이하 「문화의 위기와 그 초극」으로 줄인다.

27) 「문화의 위기와 그 초극」.

연결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국가는 “世界國家”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유진오에게 ‘문화’란 식민주의의 탈을 쓰고 항구적 평화를 침습하는 위험요소이다. 식민주의는 서구 열강의 직접적 폭력으로부터가 아니라, 문화적 침식과 기술, 문명을 통한 틈입이라는 형식으로 생활에 침윤한다. ‘문화’가 담지한 폭력적 경향은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기술과 학술적 연구에서도 명료하게 나타나는 셈이다.

그러므로 유진오가 「문화의 위기와 그 초극」에서 대상으로 삼는 ‘문화’는 필히 ‘서구적인 것’에 한정된다. ‘동양적인 것’ 내지 ‘조선적인 것’에 대한 그의 견해²⁸⁾는 서구로부터 유래하는 ‘문화’의 범람 상황을 근대적 위기에 자리매김한 것으로부터 촉발되었다.²⁹⁾ 그리하여 유진오가 동양적 문화의 보존과 존치를 위해 결정하는 ‘전향’은 그 이전 사회주의에 몸담던 유진오의 입장과 오차가 있지 않다.³⁰⁾ 오히려 전향은 유진오의 문화관이 현실의 작동원리로 번역될 때 발생하는 기표 층위의 변화, 달리 말해 ‘시차적 관점’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³¹⁾ 말하자면 대립

28) 면밀히 살펴보면, ‘조선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 역시 그 층위 역시 구분할 수 있다. 김재용은 유진오가 ‘이중의 과제’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구분을 포착하는데, 그에 따르면 ‘조선적인 것’은 “보존”의 대상이며 ‘동양적인 것’은 “추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진오의 입장에서 이 둘은 적절히 공모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유진오의 ‘대동아공영론’ 추구는 보존의 논리를 따라 내속적으로 불가능한 ‘내선일체’에 대한 탈선으로부터 발생한다. 김재용, 「일제말 친일협력의 네 가지 형식과 그 연원」, 『한국문학과 예술』 제 12권, 사단법인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3, 14-16면 참조.

29) 이는 앞서 언급한, 전기 유진오의 ‘사회적인 것’에 관한 관심과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지 전체를 뒷받침한다.

30) 이는 대동아전쟁을 지지하는 유진오의 발언에 드러나는 그의 문학적 견해로부터 뒷받침될 수 있다. “서양 사상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동양정신의 의의를 탐구하는 문학도 또한 충분히 시국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은, 이것을 사상적으로 보면 서양에 대한 동양의 싸움이며 동양의 발견 및 확립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유진오, 「주제로 본 조선의 국민문학」, 이경훈 편역, 『한국 근대 일본어 평론·좌담회 선집: 1939~1944』, 역락, 2009, 198면.

31) 헤겔을 경유한 지젝의 견해를 수용하면, 시기별로 달리하는 이들 사상성 간의 차이는 “오직 풍경이 특정 관점에서 조명될 때 그것이 존재하며 그 현존이 식별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변적 유물론의 관점과 구조적 동치를 이룬다. 즉, 여기서 “차이는 더 이상 두 개의 실증적으로 존재하는 대상들 사이의 차이가 아니며 동일한 대상을 그 자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최소 차이이다. 슬라보예 지젝, 김서

물처럼 보이는 ‘마르크스주의자’로서의 유진오와 ‘친일반민족주의자’로서의 유진오는 실상 동전의 이면처럼 단일한 문화관의 양측에 서로 달라붙어 있다.

……文化는 自由 업시는 다시 말하면 個人主義의 原理를 母胎로 하지 안코는 생각할 수 업는 것이며 따라서 文化의 危機라는 말은 必然的으로 個人主義 文化의 危機를 意味하는 것이라는 것을우리는 알아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個人主義 文化의 危機가 即 文化 一般의 危機라는 것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自由가 업는 곳에 文化가 업다는 것이다. 中世紀를 歷史家は 『暗黑時代』라 하고 個人主義가 發展하기 시작한 近世初期를 『黎明期』라 하는 것도 이와 同一한 見地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면 現在의 歐羅巴 文化는 어디로 갈 것인가? 個人主義가 벌써 絶頂을 넘어선 것이 事實이라 하면 그것은 團體主義에 依해 代置되지 아니치 못할 것인가? 따라서 個人主義 文化는 一即 文化 一般은 現在의 『危機』로부터 死滅코 들어가고 다시 暗黑이 땅우를 더풀 것인가.³²⁾

個人主義는 처음 『自我』의 自覺을 主張하여 사람을 中世的 隸屬에서 解放하는 任務를 다하는 동안 充分히 發展의인 意味을 갖고 잇섯다. 그러나 個人主義는 全體보다 個體를 前景에 내세우므로써 처음부터 벌써 矛盾을 包含하고 잇섯다. 왜 그러나 하면 全體를 떠나서 部分을 생각할 수 업기 때문이다. 그러나 同時에 우리는 個人主義가 모든 團體生活을 拒否하는 것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 個人主義는 人間의 理性에 最高權威를 認定하므로써 個人的 權威를 擁護하였지만 同一한 論據로써 一種의 『普遍人類的』이라고도 할 性質의 世界團體 世界國家라는 것을 想定하는 것이다. 『칸트』에 잇서서의 『永久平和』의 꿈—그는 이에 對해서는 悲觀論者였지만— 또는 그런 꿈의 實現의 一步로 試驗되었든 『일손』의 저 國際聯盟의 設計 이런 것들은 個人主義의 團體概念을 가장 端的으로 表明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 誤算이 잇섯든 덕이다. 個人主義는 그 成熟을 따라 漸次로 그 矛盾을 暴露하기 시작하였다. 첫째로는 個人主義가 發展의 意味를 가질 수 잇는 것은 그 發展의 初期 即 中世的 隸屬과 對立抗爭하든 時期에 限하였고 한번 그

영역, 『시차적 관점』, 마티, 2009, 41면.

32) 「문화의 위기와 그 초극」.

것이 이러한 對立物로부터 解放되자 『니체』의 『超人』 또는 『슈티르네르』의 『唯一者』에서 그 極端의 例를 보듯이 도리어 그 反對物로 轉化케 된 것이 그것이고, 둘째로는 그의 普遍人類的 團體觀念이 人類의 歷史的 發展段階에 相應하지 못하는 一個 蜃氣樓였다는 것이 點을 觀破한 點에 잇서서 『칸트』는 역시 慧眼을 가졌었다 할 것이다—이 漸次로 綻露된 것이 그것이다.³³⁾

이 같은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진오가 문제로 지적한 ‘문화의 위기’가 어떤 층위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유진오의 관점에서 1930년대 말기 ‘문화의 위기’는 서구 근대 인식론의 위기에 다름 아니다.³⁴⁾ 당시의 구라파(유럽) 문화는 “個人主義가 벌써 絶頂을 넘어선” 상태이다. 유진오는 진정한 ‘문화의 위기’란 “個人主義 文化의 危機”라는 점을 제시하며 서구의 관점을 비튼다. 서구적 ‘문화’ 발전은 서구인들이 자유를 쟁취하는 과정과 역사를 같이했다.

그런데, 필시 자유란 개인주의와 결부되는 것이기에, 자유의 성취는 곧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본래 개인주의는 인간을 “中世的 隸屬에서 解放”하는 역할을 자처했으나, 앞선 점들을 종합할 때 개인주의는 ‘근대성’과 매우 상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주의는 “全體를 떠나서 部分을 생각할 수 업”음에도 개체성을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내속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 서구 근대에서 그러한 모순을 자각하지 못하고 “個人主義가 벌써 絶頂을 넘어”서게 된 상황은 동양 및 조선에도 그 개인주의 문화가, 단체주의와 의고적 전통을 해체하는 강력한 힘이 투입하게 되는 상황인 셈이다.

유진오의 이러한 지점으로부터 ‘문화’에 대한 인식적 공포를 내비친다. “시정(市井)의 리얼리즘”은 이 대목에서 중요한 해석적 단초를 제공한다. 아직 설익은 상태의 개인주의는 그 자체로 맹렬히 전진하는 문명의 모습이다. 유진오는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서구의 개인주의가 “칸트에 잇서서의 『永久平和』의 꿈”을 “悲觀”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문화’ 속에서 소설이 취하는 비-서구적 “시정의 리얼리즘”은 “모든 것을 ‘기성사실’이라 전제하고 이를 수리”³⁵⁾

33) 「문화의 위기와 그 초극」.

34) 윤대석, 「유진오 문학 연구」, 11면.

한다는 점에서 탈-이데올로기적 대응 방식인 셈이다.

1930년대 후반에 지식인 공동체 내에서 생산된 담론들 가운데 유진오는 세계국가 건설을 향한 과도기적 형태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지향점으로 동일시한다. 그 지향점이란 동아시아적 단체주의, 즉 대동아공영론이다.³⁶⁾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조선 지식인들은 일제가 대륙을 상대로 제시하는 대동아공영론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러한 받아들임은 저마다의 방식을 통해 합리성을 획득했다. 유진오에게 그 방식이란 “地域的인 團體觀念”이었다. 대동아공영론을 세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의 친일행적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자면) 그것이 “世界國家”로 도약하기 위한 중간자적 “地域的인 團體觀念”의 형상을 띄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진오의 적극적 받아들임은 달리 보면 “동아협동체를 통해 서구의 개인주의가 갖고 있는 탐욕”³⁷⁾에 대항하는 유진오 나름의 탈식민주의적 반동(reaction)이었다. “시정의 리얼리즘”은 이러한 반동을 표현하기 위한 대응적 글쓰기 전략으로 기능한다.³⁸⁾

유진오가 그리는 정치적 이상으로서의 “世界國家”는 탈-서구적인 경향을 띤다. 그런데 유럽을 중심으로 유래된 서구 문화란 그의 관점에서 ‘보편인류적’인 통합으로 인류를 인도하기에 미비하고 미숙했다. 물론, 유진오는 서구 문화의 개인주의가 꼭 오도된 경향만 떨 것이라 보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는 단체주의를 성취할 만큼 ‘문화’의 발전이 무르익지 못한 시기에, 통합적인 ‘세계국가’로 비약하기는 무리가 있던 것이다. 이러한 사고 끝에 유진오는 “地域的인 團體觀念”은 근대적인 통합국가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단체관념은 “決코 自由와 文化를 否認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의 正當한 發揚을 前提로 하

35) 김윤식, 「식민지형 지식인의 이중적 자기모순성과 문학 -유진오론」, 윤대석 편, 『김윤식평론선집』, 지식음만드는지식, 2015, 114면.

36) 진영복, 「절제되고 섬세한 흔들림과 생활 세계」, 『유진오 작품집』, 지식음만드는지식, 2008, 14면.

37) 진영복, 같은 면.

38) “시정의 리얼리즘”은 “과시즘적 계절풍에 대응한, 새로운 문학의 길”(114면) 찾기에 해당한다.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운 일본의 군국주의적 행보 앞에서 ‘시정적’인 글쓰기는 심한 자기분열의 표징이라고 김윤식은 밝히고 있다. 김윤식, 위의 글, 114-120면 참조.

야 成立하는 것이다.”³⁹⁾ 말하자면, “地域的인 團體觀念”이란 적절히 무르익은 “個人主義”로부터 발양하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단체’에 대한 관념이었던 것이다.

유진오가 “동아(東亞)의 지역을 블록화하는 동아협력체”⁴⁰⁾를 지향함을 고려할 때, “地域的인 團體觀念”를 표방하지 못하는 서구의 오도된 개인주의는 삶을 침습하는 침입자의 형상을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 바로 그것이 유진오에게 서구 문명이며, ‘근대’였던 셈이다. 그리하여 유진오의 글쓰기는 서구 개인주의의 틈입이라는 ‘문화의 위기’를 동아시아적 사고로 초극하는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창랑정기」는 유진오의 정치·문화적 견해와 궤를 달리하고 있는 소설로 분석되곤 한다. 그 이유에는 첫째, 소설이 그리는 ‘생활세계’의 편린이 대체로 ‘향수’와 ‘전통’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전체 ‘문화관’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 “단숨에 대륙의 하늘을 못찌르려는 전금속제(全金屬製) 최신식 여객기다.”라는 소설의 마지막 구절이 지닌 반일(反日)·반제(反帝)적 서술 때문이다. 유진오의 ‘시정의 리얼리즘’을 설명할 때 종종 「창랑정기」 이후 소설들만이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선 ‘문화’에 대한 관점과 유진오의 정치·문화적 이상을 고려한다면, 서구적 ‘문화’의 범람에 대응하는 유진오의 후기 경향은 이러한 생활세계의 편린과 전통에 대한 향수 역시 ‘조선적인 것’ 내지 ‘동양적인 것’의 보존과 추구라는 유진오의 원리가 자리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창랑정기」에는 어떠한 사상적 전체성도 결여된, 심지어 ‘생활세계’에서의 (조선적인) 원리인 전통적 ‘가족 관계’ 역시 해체되어 버린 현실 앞에 선 인물로부터 소설은 식민지 지식인이었던 유진오가 겪었던 동일시의 위기를 유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창랑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향수, 전통, ‘조선적인 것’의 동일시 원리와 그로부터 동일시가 해체되는 ‘문화’의 범람을 주목해 보도록 하자.

39) 「문화의 위기와 그 초극」.

40) 진영복, 위의 글, 같은 면.

3. ‘창랑정’의 꿈과 ‘문화’의 공포

「창랑정기」는 1938년 4, 5월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다. 이 시기는 초극을 향한 유진오의 고민이 극치에 달해 있던 시기였다.⁴¹⁾ 「창랑정기」에는 ‘문화’의 위기에 대한 대응하는 유진오의 입장이 녹아있다. 어떠한 사상적 전체성의 우위를 수용하지 않고 본인이 가진 정치적 지향의 구현물을 찾는 과정 중에 있음을 드러냄⁴²⁾이 바로 그것이다. 본 절에서는 유진오가 제시하는 이상적 국가관 성립을 위해 일차로 제시되는 ‘지역적인 단체관념’과 ‘창랑정’이 맺고 있는 연관성을 살피고 이로부터 유진오의 전향이 지닌 시차적 특성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소설은 일차적으로 ‘문화’의 범람으로 사그라진 조선적 단체주의에 대한 애도를 담고 있다. 이야기는 창랑정의 몰락 원인을 되짚어가는 주인공의 회상으로 진행된다. 현재는 이미 철거되어 “곧에도 낫모르는 큰 공장”⁴³⁾이 되어버린 창랑정을 생각하며 “남들과 같이 가끔가끔 가슴을 조리피며 그리워할 아름다운 고향을 갖고 있지 못”⁴⁴⁾한 화자는 ‘고향 없는 자들’조차 느끼는 향수에 빠진다.

그런데 소설의 내적 구조를 살펴보면, 이 향수가 구성되는 원리에서 개인주의에 대항하는 유진오만의 문화관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주의가 현재에 두드러진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단체주의와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이 소설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것은 소설에서 한 개인의 인식적 폭이 가장 생득적이고 원초적인 “團體觀念”, 즉 가족 관계에 의해 확장되는 형태를 띠면서, 그 유비적 형식으로 “地域的인 團體觀念”이 확립된 비-서구적 ‘문화’를 보여준다.

회상의 첫머리는 ‘서강 대신’ 김종호가 일선에서 물러나 자리 잡은

41) 장성규, 위의 글, 67면.

42) 정호웅, 「유진오론」, 『문학교육학』 제21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326면 참조.

43) 「창랑정기」, 92면.

44) 「창랑정기」, 68면.

당인정(唐寅丁) 창랑정에 대가족이 모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아버지를 따라 창랑정을 처음 방문한 서술자 ‘나(김시근)’는 아버지의 안내를 따라가며 대가족의 구조를 체득하고 그 구조 속 자신의 자리를 찾는다. 아버지는 서술자에게 가장 어르신인 “서강 하라버지”⁴⁵⁾부터 시작하여 “서강 대신의 증손자 나의 열두촌 형님 김종근”⁴⁶⁾을 소개하고는 “정정부인은 아랫목에 누어 계신데 아버지와 내가 번갈아 절을”⁴⁷⁾ 하게 한다. 이어서 “정정부인께 절을 한 뒤 아버지와 나와는 무슨 할머니다 무슨 아주머니다 하는 방 안 노인들께 돌아가면서 절을”⁴⁸⁾ 시킨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아이 취급을 받던 서술자가 자신이 속한 가문의 줄기로부터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서강 대신은 병석에 누어 계셨다. 양명한 저녁 해빛이 서남으로 터진 큰 사랑 앞마루에 환하게 빛이고 있었지만 문을 열고 큰사랑에 처음 들어섰을 때에는 방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치 캄캄하였다. 아버지는 아랫목 편으로 가서 누어 있는 대신에게 절을 하시고 난 뒤 나더러도 절을 하라 하신다. 시키는 대로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앉으니까

(중략)

그제서야 내 눈에는 방 안의 것이 푹푹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서강 대신은 그때 나이 벌써 팔십이나 되고 거기다가 오래 병석에 누어 있을 때라 몹시 수척하기는 했으나 기름한 얼굴 한 살결 은빛 같은 수염 모든 것이 과연 어린 내 마음에도 가진 풍상을 다 겪은 귀인의 풍모같이 보였다.

아버지와 서강 대신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나는 차례차례로 방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때까지 게동 우리 집 간반 방 사랑밖에 모르던 나에게 진기하기 짝이 없었다. 마루로 향한 미단이에는 갑창을 굳이 닫은 우로 또다시 지튼 자주빛 방장을 드리워 있고 그 반대편에는 구름을 타고 물결 위에 노니는 신선을 그린 큰 병풍이 삼간벽을 꽉 채우고 있었다. 방구석에 놓인 사방탁자와 대신의 머리맡에 놓인 한 쌍 문갑 우에는 커다란 옛날 책들이 길길이 쌓여 있다. 벼루집 우에 놓인 용을 새긴 붓꽂이 그 옆에 있는 범을 새긴 대리석 도

45) 「창랑정기」, 69면.

46) 「창랑정기」, 72면.

47) 「창랑정기」, 78면.

48) 「창랑정기」, 78면.

장 벽에 걸린 옛날 명필의 글씨 한 말쑤지로 맨든 긴 총채... 아 그 모든 신비스럽고도 호화롭던 방 장식은 지금도 내 눈에 보이는 듯하다.⁴⁹⁾

서술자를 통해 그려지는 창랑정의 생활세계는 유진오가 ‘조선적인 것’이라 설명한 것과 일치한다.

서술자에게 창랑정은 초면엔 아주 낯설게 다가온다. 그러나 이내 예절로서 그 낯섬은 부드럽게 극복된다. 극복은 앞서 서술자가 주지시키는 ‘향수’를 앞선다. 즉, ‘창랑정’이 반-문명적 표식을 획득하기에 앞서 그것은 애초에 매우 낯설고 불가해한 형식으로 인물 앞에 던져져 있었다. 서술자는 얼굴이나 직분, 관계 등을 알지 못하는 인물들과 만나고, 아버지에 의해 차츰차츰 누구인지를 알아가며 가족 구성원으로 편입된다.⁵⁰⁾ 앞서 자신의 가족 내의 위치를 확인한 서술자는 ‘입사의례’로서의 “절하기”를 끝내자마자 “방 안의 것이 푹푹이 보이기 시작”한다.⁵¹⁾ 그것이 자신을 둘러싼 어두운 세계에 대한 자각이며 인식적 확장이 일어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위 인용에서 주목할 부분은 ‘조선적인 것’에 대해 서술자가 취하는 태도가 명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는 서술자의 시선의 논리를 따른다. 서술자는 아버지와 서강 대신이 대화를 하는 틈을 타 구체적인 사물 형상들을 관찰한다. 시선은 “갑창”, “방장”, “병풍”, “사방탁자”, “문갑”, “벼루집”, “도장”, “총채”로 이어진다. ‘조선적인 것’의 구현물인 이들 사물은 ‘전통’의 담지자인 서강 대신의 구체적인 생활세계를

49) 「창랑정기」, 71-72면.

50) 물론 가족 관계 내 서술자는 이미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의 관점에서는 창랑정 첫 방문은 자기가 어떤 주체로 호명되었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타자를 대하는 아주 낯선 경험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편입은 순전히 주체의 인식적 측면에서의 편입이라 할 수 있다.

51) ‘입사의례’인 ‘절하기’로부터 인물이 주변 질서를 자각하는 것은 ‘누빔’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라캉에게 ‘누빔’은 주체가 상징적 질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기표들을 일정한 해석 틀로 일관되게 정렬하여 의미의 일관성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절하기’는 서술자에게 자신이 가족 내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인식시키고 정렬함으로써, 비로소 ‘창랑정’의 생활세계를 예찬적 언어로 일관되게 의미화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수반한다.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역,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다』, 인간사랑, 2004, 165면 참조.

보여준다. 그리고 그 세계는 서술자에게 “신비스럽고도 호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문화적 상위의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소설에서 볼 수 있듯, ‘생활 세계’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논리는 ‘전통’을 바라보는 논리로 쉽게 전이된다. “귀인의 풍모”처럼 보이는 서강 대신의 모습에서부터, 지루함을 이기려고 나간 강편의 백사장이나 “영농한 빛”의 저녁 노을 등 주변에 대한 묘사⁵²⁾, 열두 촌 형님 종근의 새색시가 시집을 때 데려온 교전비(轎前婢) 을순과 친해져 어울리다 땅속에서 발견한 “이상스런 조각(彫刻)이 가득하고 찬란한 순금 장식”을 단 검에 대한 서술⁵³⁾까지, 서술자의 시선을 따라 ‘조선적인 것’은 영화롭고 찬란했던 과거의 전유물로 창랑정에 대한 향수감 전면에서 놓인다.

‘조선적인 것’은 시류를 따라 사그라드는 과정 중에 있던 서강 대신이나 창랑정, 혹은 이미 땅속에 묻혀버린 검과 같이 몰락의 이미지와 체재하고 있었다. 서술자의 시선 속에서 이는 아름다운 과거라는 의미를 띠고 있지만, 이는 현재 이미 몰락이 실현된 상황에서야 서술자에게 있어서 “창랑정은 한층더 내 향수를 자아내는”⁵⁴⁾ 대상이 된다.

창랑정의 몰락을 부추긴 것은 종근의 오입질이다. 창랑정을 지키던 어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자 종근은 신식 양복을 입고 오입질을 하기 시작한다. 서강 대신의 대상(大祥) 때 “창랑정은 이미 집터까지 남의 손으로 넘어간 텅 비인 껍데기뿐이었다”⁵⁵⁾고 할 정도로 빠르게 창랑정은 소멸하고 만다. 이러한 몰락의 핵심 인물 종근은 서강 대신이 가진 전통 지향의 신념, 선진화된 학교 공부를 시키지 않기를 고수하는 신식 교육 거부 의 신념에 일탈로 대응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쇄국의 일선에서 술하게 양이의 침입에 맞섰던 서강 대신도 시대적 기류의 변화 앞에서는 무력하다. 그는 “세상이 날로 그의 생각과는 달라감을 보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손에게 신식 공부를 시킬 필요를 느”⁵⁶⁾낀다. 서술자가 창랑정이라는 가족적 공간에 편입할 수 있

52) 「창랑정기」, 74-75면.

53) 「창랑정기」, 86-88면.

54) 「창랑정기」, 89면.

55) 「창랑정기」, 90면.

56) 「창랑정기」, 73-74면.

있던 것 역시 이러한 시대적 기류에 있었다. 아버지는 “한국 관비유학생으로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탁지부로 내각제도국으로 벼슬을 다니다가 합방이 된 후에도 그대로 계속해 다니고”⁵⁷⁾ 있는 초기 유학과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서강 대신도 이러한 기류에 위기감을 느껴 의논을 위해 아버지를 창랑정으로 소환한 것이다.

이러한 소설 구조는 ‘문화’가 생활세계에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관한 유진오의 사고를 투영한다. ‘조선적인 것’은 화자가 자신이 공동체 내에 동일시 지점을 구성하는 원리로 기능한다. 서강 대신이라는 강력한 원리의 담지자를 중심으로 고풍스러움을 풍기는 창랑정은 서술자를 매혹시키고, 그 공간에서 자기 정체성의 원리를 도출하도록 만든다.

이에 대처하여 이러한 원리의 성립을 해체하는 틈입이 바로 ‘신식 교육’으로 에둘러 표현되는 ‘문화’의 범람이다. 이 범람은 서강 대신이라는 집단정신의 담지자도 어찌해볼 수 없는, 강한 추동력을 지닌 힘이다. 오입질을 시작할 때 종근이 “별안간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⁵⁸⁾는 문화적 변모를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범람이 지닌 탈-봉합⁵⁹⁾적 성격을 드러낸다. 즉, ‘문화’의 범람은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기표로 현실 원리를 재구성한다. 이 경우에 세상을 구성하는 질료는 이전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오로지 질서/관점만이 새로움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재구성된 세계관을 ‘근대’라고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는 ‘시정세계’로서의 ‘조선적인 것’이 해체되고, 그로부터 전통적 원리들이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마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서술자의 공포를 수반한다. 이것이 ‘문화’의 소치로서 나타나는 ‘조선적인 것’의 위기이다.

너무나 심한 변화에 실망한 채 나는 한참이나 공장 앞마당 석탄재 쌓인 우를 거닐며 꿈속의 기억을 되풀이해 보려고 하였다. 마당 앞 낭떠러지기 밑 푸른 강

57) 「창랑정기」, 73면.

58) 「창랑정기」, 89면.

59) 라캉적 ‘탈-봉합’(de-suture)이란, 기존에 봉합된 “사회체 내부의 고정된 위치”가 상실됨으로써, 오직 이런 ‘탈-봉합’을 통해서만 새로운 ‘봉합’이 가능하게 되는 역설적 원리를 말한다.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역,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다』, 169-171면 참조.

물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출렁거리고 있다. 그러나 음산하게 찌프린 하늘에서는 봄이라 해도 오슬오슬 짙짙한 바람이 불어 내려올 뿐. 끈힘없이 왈가닥거리고 돌아가는 기계 소리는 애써 옛 기억을 더듬으려는 내 머리를 여지없이 혼란시킨다.

창랑정은 추억의 나라 구름과 연기에 쌓인 꿈의 저편에만 있을 수 있는 존재였든가! 나른한 추억에 잠겼던 내 정신은 차차로 굳센 현실 앞에 잠깨온다.

문득 강 건너 모래밭에서 요란한 푸로페라 소리가 들린다. 건너다보니 까맣게 먼 저편에 단엽 쌍발동기 최신식 여객기가 지금 하늘로 날려 올으려고 여의도 비행장을 활주 중이다. 보고 있는 동안에 여객기는 땅을 떠나 오십 메돌 백 메돌 이백 메돌 오백 메돌 천 메돌 처참한 폭음을 내며 떠올라 갔다.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국경을 넘어 단숨에 대륙의 하늘을 뚫찌르려는 전금속제(全金屬製) 최신식 여객기다.⁶⁰⁾

동일시가 실패하는 위기 아래 발현되는 ‘문화’의 공포는 스스로 중일 전쟁 앞에 새로운 동일시를 모색하는 조선인을 생산한다. 그것은 어찌 보면 여전히 단체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모색 이후는 그 모색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여기서 유진오는 여기서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하는데, 그것은 바로 “굳센 현실”의 자각, 즉 ‘조선적인 것’의 몰락/보존 실패가 그것에 대한 향수로 전환되며 동시에 ‘동양적인 것’의 자리가 부상하는 “현실인식 방향의 결정적인 전환”⁶¹⁾이다. ‘서구적인 것’의 기호인 기계 문명의 발달이 “애써 옛 기억을 더듬으려는 내 머리를 여지없이 혼란” 시키는데, 여기서 오히려 그러한 혼란에 잠식되지 않고 이내 “굳센 현실 앞에 잠깨”는 서술자의 모습에서 ‘문화’의 위기에 침식되지 않고 새로이 동일시를 모색하는 유진오의 비평적 주체성의 연관을 이룬다.

그러한 점에서 “단숨에 대륙의 하늘을 뚫찌르려는 전금속제(全金屬製) 최신식 여객기”는 그러한 전환을 상징하는 기표가 되어야 옳다. 단순히 그것이 지닌 호전적, 기술문명적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앞선 두 문단의 서술과 배치(背馳)되는 설명이기 때문이다.

60) 「창랑정기」, 92-93면.

61) 변정화, 「귀향의 사회학 -유진오의 <滄浪亭記> 연구」, 191면.

“군센 현실”은 ‘조선적인 것’으로서의 단체주의가 불가능해진 담론적 현실을 배제하는 원리로서의 ‘동양적인 것’, 즉 대동아공영론의 구현물이다. 그러므로 비록 “푸로페라 소리”가 요란하기는 하지만, “전금속제 최신식 여객기”는 “내 정신”을 “잡개”게 한다는 점에서 생활세계에 닥친 ‘문화’의 범람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표가 된다.

말하자면, 유진오가 「창랑정기」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비단 고향 상실로부터 오는, 만인의 공통감으로서의 향수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향수 앞에서, 동일시의 실패 속에서 새롭게 자리를 모색해야 하는 조선(지식)인 자체를 그려내고 있다.

4. 나오며: 전향-비전향이라는 두 층위

지금까지 살펴본바, 유진오의 ‘전향’은 마르크스주의자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스스로의 태를 전환하는 외면적 층위와, ‘문화’에 대한 관념과 “地域의인 團體觀念”을 바탕으로 한 국가관을 토대로 일관된 사상적 기반을 견지하는 내면적 층위로 구분되어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유진오의 ‘전향’은 전향-비전향의 두 층위로 분열되어 있으며, 이것이 유진오 문학의 다층성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유진오에게 이런 분열은 불가피했을까? 일견 그의 전향 원리를 “전체성적 권위에 대한 근본 비판”⁶²⁾을 담지한다고 논하거나 “과시즘의 계절풍에 대응한, 새로운 문학의 길 찾기”⁶³⁾라는 모색 과정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다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스스로의 양태를 결정하는 그의 사상적 처신은 ‘대동아공영론’에 대한 진정한 근본 비판이 결여되어 있는 듯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일제가 동아시아에 여러 식민지를 두고 두 가지 다른 방식의 정책을 펼쳤다는 것은 이에 대한 보충이 된다. “일본 제국주의는 대체로 조선과 대만에서는 동화주의(제국주의적),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는 협동주의(제국적)를 택하고 있었다.”⁶⁴⁾는 서술을 참조할 때, 유진오의 ‘대동

62) 정호용, 위의 글, 같은 면.

63) 김윤식, 위의 글, 114면.

아공영론’ 수용은 그가 그것의 기저 정책인 ‘제국주의적 동화주의’를 ‘제국적 협동주의’로 오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로컬 컬러’에 대한 유진오의 견해가 다소 ‘동화주의’ 입장을 견지한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⁶⁵⁾, 배서(拜西)사상에 대한 항변⁶⁶⁾ 등을 볼 때 유진오의 대동아주의는 ‘동화’에 있기보다는 ‘협력’에 위치한다.

정리하자면, 유진오의 전향은 비전향과의 공모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그가 ‘문화’에 초극하는 방법이었고, 그의 글쓰기가 모색한 길이었다. 「창랑정기」는 이 같은 유진오의 비전향적 특질을 포착할 수 있는 작품이다. 서술자가 ‘조선적인 것’과 전통의 몰락에 경중을 울리면서 그것을 향수의 대상에 위치시킴으로써, 독자는 “굳센 현실” 앞에 사실을 수리하며 대응하는, 그 공포의 “전금속제(全金屬製) 최신식 여객기” 앞에 서게 된다. 이러한 지점이 백철의 방식⁶⁷⁾과는 변별되는 유진오만의 ‘사실수리론’⁶⁸⁾이었다면, 이러한 결론은 유진오 문학 연구 전

64) 윤대석, 『『국민문학』의 ‘신지방주의’론』,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258면.

65) “단지 로컬 컬러를 중심으로 하여 일본문학의 장외에 서 있다는 지금까지의 생각은 지금부터는 도저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좌담회 「국민문학의 일년을 말한다」, 『國民文學』, 윤대석, 『『국민문학』의 ‘신지방주의’론』, 259면에서 재인용.

66) “서양문화에 대한 인식이 생겨감에 따라 나의 이러한 배서사상(拜西思想)은 점점 더 강해갔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남을 배운다고 해서 그를 맹목적으로 숭배하여 자기의 장점까지 죽어버려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동양이 서양문물을 배운다는 것은 그 점에 있어서는 좋은 일이었다. 그러나 재래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저버린다 하면 처음부터 배우지 아니함보다도 더 큰 폐단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유진오, 「동양과 서양 - 東亞文藝復興에 관한 一斷想」, 김병걸·김규동 편, 『親日文學作品選集·2』, 64-66면.

67) 백철의 시각에서, 중일전쟁기 조선 문단이 행하는 이상적 인도주의는 “시대적 우연”의 산물이며 어찌할 수 없는 이 우연에 대한 ‘사실수리’의 일환이었다. 즉, 백철의 사실수리론은 당시 출현하는 인도주의 문학이란 ‘전쟁문학’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607-608면.

68) 이는 손정수가 유진오에 대해 명명한 “자유주의적 태도”와도 궤를 함께한다. “조선적인 것에 대한 그의 태도는 당대의 담론의 방향을 노골적으로 수용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유진오의 ‘사실수리론’은 사실을 기성사실(既成事實)로 손쉬이 수용하고 그에 감응하지 않는, 달리 말하면 현실 공간 속에 내던져진 주체성을 모색하고 탐색하여 현실과 관계성을 재수립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손정수, 「『국민문학』에 흡수되지 않는 타자적 계기들」, 『우리말글』 제73권, 우리말글학회, 2017, 319-320면 참조.

체에 새로운 관점을 도입시키는 보충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Writing to Overcome the Overflow of ‘Culture’

-Yoo Jin-O’s Theory of Conversion and *Changnangjeong-ki*

Lee Ji-sang(Hanyang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divisive nature of Hyunmin[玄民] Yoo Jin-O’s “conversion” and aims to locate his short story *Changnangjeong-ki*[滄浪亭記, *A Tale of Changnangjeong*] within this transformative process.

Known primarily as a person in the legal profession, Yoo Jin-O was active as a literary artist before Korea's liberation, leaving numerous imprints in the field. Existing research perspectives on him generally divide his work into two stages: an early career as a “Marxist” companion writer and a later career characterized by acceptance of Pan-Asianism and pro-Japanese nationalism. This paper, while acknowledging this binary, also diverges from the existing view that Yoo’s conversion was solely a matter of ideological renunciation or a leap forward. Yoo developed a stance on “culture” that defended “the Chosunistic” and “the Oriental” against the encroachment of Western individualism, an inclination that parallels his early prioritization of Marxism as “the Social.” Thus, Yoo’s conversion can be seen as a response to the periodic fear of a culturally saturated era, revealing a divided stance between conversion and a-conversion. The insistence to the lifeworld in *Changnangjeong-ki*, published in 1938, exposes the agony of Yoo during a turning period when traditional identifications had fractured. This agony parallels with

his own critical identity as an individual searching for a response to the overflow of “culture.”

In this light, the layering of these two divisions becomes apparent, providing a crucial distinction between Yoo’s methodology of accepting present realities and Baek Cheol’s approach.

Key words : Yoo Jin-O, Conversion, A-conversion, Changnangjeon-ki, Overflow of ‘Culture’, Regional Collective Notion, the Chosunistic, Methodology of Accepting Present Realities

[참고문헌]

□ 기본자료

- 유진오, 진영복 편, 「창랑정기」, 『유진오 단편선』, 지식을만드는 지식, 2008, 65-93면.
_____, 「朝鮮文學에 주어진 새길」, 『동아일보』, 1939년 1월 10-13일.
_____, 「歐羅巴文化는 어대로? 結論: 文化의 危機와 그 超克」, 『조선일보』, 1939년 5월 10-13일.
_____, 「걸어온 길: 作家 生活의 回顧」, 박문서관, 1939.
_____, 『구름위의 漫想: 兪鎮午隨想錄』, 일조각, 1966, 271면.

□ 단행본

- 김윤식, 『한국현대근대문예비평사연구』, 문학과지성사, 2024, 235-268, 607-608면.
윤대석, 『식민지 문학을 읽다』, 소명출판, 2012, 99-100면.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역,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사랑, 2004, 165면.
_____, 김서영 역, 『시차적 관점』, 마티, 2009, 41, 169-171면.

□ 논문 및 기타 자료

- 김기진, 「朝鮮文學의 現在의 水尊」, 『신동아』, 1934년 1월, 46면.
김윤식, 「광복후의 문화운동연구 -인민민주주의 민족문학운동을 중심으로」, 국사편찬위원회 편집부 편, 『國史館論叢』 제25집, 국사편찬위원회, 1991, 223-224면.
_____, 「식민지형 지식인의 이중적 자기모순성과 문학 -유진오론」, 윤대석 편, 『김윤식평론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015, 114-120면.
김재용, 「[기조강연] 일제말 친일협력의 네 가지 형식과 그 연원」, 『한국문학과 예술』 제12권,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3, 14-16면.
박창환, 「일제 말기 유진오 소설의 애도 양상 연구」, 숭실대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2021, 1-2면.
변정화, 「유진오 작품고(Ⅱ) -훼손된 시대와 소설의 구조-」, 『국어교육』 51호, 한국어교육학회, 1985, 16-17면.
_____, 「귀향의 사회학 -유진오의 <滄浪亭記>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191면.
손정수, 「‘국민문학’에 흡수되지 않는 타자적 계기들」, 『우리말글』 제73권, 우리말글학회, 2017, 319-320면.
유문선, 「동반자작가의 전향에 관한 시론 -현민 유진오의 경우-」, 『관악어문연구』 제8

- 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3, 371-385면.
- 유진오, 「동양과 서양 -東亞文藝復興에 관한 一斷想」, 김병걸·김규동 편, 『親日文學作品選集·2』, 실천문화사, 1986, 64-66면.
- _____, 「소감」, 『親日文學作品選集·2』, 71면.
- _____, 「주제로 본 조선의 국민문학」, 이경훈 편역, 『한국 근대 일본어 평론·좌담회 선집: 1939~1944』, 역락, 2009, 198면.
- 윤대석, 「유진오 소설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1996, 4-11면.
- _____, 「『국민문학』의 ‘신지방주의’론」,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258-259면.
- _____, 「폐색의 시대, 길을 묻다 -김남천·유진오의 소설에 대해」, 윤대석 편, 김남천·유진오, 『김강사와 T교수』, 현대문학, 2011, 13-14면.
- 장성규, 「1930년대 후반기 소설 장르 인식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12, 67면.
- 정종현, 「현민(玄民)이 아직 진오(陣伍)일 때 -청년 유진오의 글쓰기를 통해 본 식민지 아카데미즘과 사회주의」, 『역사와현실』 제118호, 한국역사연구회, 2020, 315면.
- 정호웅, 「유진오론」, 『문학교육학』 제21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326면.
- 진영복, 「절제되고 섬세한 흔들림과 생활 세계」, 『유진오 작품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008, 14면.
- 황경, 「兪鎮午文學研究」,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1992, 58면.